

한국인 눈과 마음을 가진 프랑스 태극전사 필립

1988년 지금으로부터 35년전 묵묵한 모습으로 내가 머물고 있는 서울 용암사 절에서 처음 그를 만나게 되었다. 태권 태권 가슴으로 외치며 태권도 동작 연습을 하고 있는 프랑스인

스페인어,영어,불어 아프리카, 한국말을 구사 하며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 앞에서 열심히 발차기 동작을 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 하셨을까?

20대 중반의 청년이의 가슴에도 깨달음의 화두가 이심전심으로 전했을까?

몇 년이 한국에 머물며 한국말과 태권도를 배우던 젊은 무도인(武道人)

나 역시 대학교시절 동생 필립과 함께 강원도 동해안 양양 바다가와 낙산사절, 신흥사절, 설악산 대청봉(사진), 정상가지 올라 갔던 기억 낙사사절 앞에서 함께 사진 찍으며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필립도 자신의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하여 세찬 파도처럼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나 역시 85년 9월부터 88년 3월까지 군대생활 31개월을 마치고 절에 돌아와 푸른눈과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지닌 동생의 모습 보았지.

너의 유학 생활은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 해 춥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마음으로 한국에 머물며 밤 늦게까지 힘들고 고된 운동을 통하여 노력한 땀 방울이 현재 여러 국가에서 초청되어 태권도 지도자를 하리라는 생각을 못 하였을 것이다.

용암사 절 앞 마당과 법당 뒤 소나무 숲에서 수천번 발차기를 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이 선 합니다.

프랑스

작은 사과 씨앗이

대한민국

모진 바람과 햇살을 이기고

세계인을 가르치는 큰 과실 나무가 되었음을....

함께 젊은 혈기에 배낭을 메고 여행하며 강릉행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며 몇 푼 안되는 돈으로 작은 식당에 들러 끼니를 채우며 이곳 저곳에 발자국을 남겨던 나날들....

함께한 추억이 어언 35년의 나이테로 성장할정도로 눈 깜작 할 사이 바람처럼 흘러 갔구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대구 계명대학교에 교수로 왔다는 전화 목소리 그 후 연락이 두절 되었다가 머난면 코스타리카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소식에 이어 페루에서 머물고 있다는 말.....

또 다시 2021년 겨울 멕시코에서 태권도를 지도 하고 있다는 그 와의 페이스 북 전화

이제 우리 둘다 50살이라는 얼굴의 주름을 안고 60을 바라보는 나이테가 되어 가는 구려

눈을 감고 지난날 생각 하며.....

젊은 태권도 나무가 훌륭한 대목으로 해외 여기저기서 태권도 꿈나무를 지도 하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자랑스럽구나!

사찰에 스님들이 말 없이 수행 하듯

나의 동생 필립 역시 태권도 도복을 입고 말 없이 수행을 하며 깨달음의 향해를 배를 저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였을까?

무예(武藝)란 도(道) 이다.

말 보다는 행동이

행동 보다는 가슴으로 닦아 나아는 그를 보며

지난 50년간 봉원사에서 승려생활을 한 나에게도

어쩌면 필립이 내겐 삶의 큰 스승이 아닐까 생각 한다.

불교에서 스승이나 젊고 늙은 나이와 상관 없이

세상 만물 모두가 스승이라고 하듯

아마도 전생에 동생 필립은 형제나 아니면 수행의 동반자가 아니 었을까 생각 한다.

전생의 일을 알고저 한다면....

현재의 모습이 바로 전생에 내가 닦은 業(업)이요?

미래의 모습을 알 고져 한다면....

현재 행하고 있는 그 모습

미래의 내 모습이라는

부처의 가르침

몇 년전 그러니까 예술공연단을 이끌고 코스타리카로 달려 가겠다는 약속 못  
치키고

이제 나마 대한민국의 지구 반대편 멕시코로 달려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도 싶  
다.

나의 기억에 멕시코는 생소한 곳은 아니다. 지난 추억의 시간을 꺼내어 보니

2003.7.12.~20. 멕시코 제 8회 Zacatecas 국제무용제 공연(멕시코 사카테카스)에  
한국무용의 권위자 국립창원대학교 김향금교수와 33명의 무용단을 이끌고 참석 한  
나라 이다.

20년 가까이 시간은 흘렀어도 멕시코인들의 따스한 가슴과 정열적인 춤 등이 아직  
눈과 귀에 선 하다.친절함이 베어있는 사람들....

그들의 미소가 바로 성모마리아의 미소요 예수크리스토의 미소일 것이다.

십자가 놓여진 성당앞 공연장에서 활달하게 웃는 모습 마야문명의 후손 답게 태양처  
럼 강렬한 리듬과 몸 동작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우쳐주는 공연 이였다.  
또 한 이른 아침 성당에서 페스티벌에 참가한 각국의 공연단과 함께 아침 미사를  
보면서 한국의 불교음악을 미사곡으로 불러 보라는 신부님의 말씀에 성모마리아상  
앞에 승복을 입고 5분정도 노래를 했던 내 모습을 되새겨보니 동서양과 남미 국가  
는 초월하여 깨달음의 영역은 사찰과 성당, 교회를 초월 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는  
시간 이였다.

필립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나에 몸과 마음은 다시 멕시코에 가 있음을 느낀다.

코로나로 지구촌 전체가 내일을 장담 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필립은 웅령찬 태권  
도 기압소리는 코로나와 오미크론 녀석도 놀라서 도망가지 않을까?

멕시코인 들의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는 웅령찬 목소리

머나먼 이곳 한국까지 들려오는 듯싶다.  
필립 너의 목소리도.....

2022년 한국의 겨울에서 태양이 활활 타오르는 멕시코로 바람에 실려 몇 자의 추억  
을 실려 보내며....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중요무형문화제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사단법인)세계문화예술컨텐츠교류연맹 이사장  
서울 용암사 주지 김응기(법현)